

GIST x 포스코미술관 교류전, <빛, 창조를 잇다> 오룡아트홀서 10월 30일까지

- GIST 오룡아트홀 첫 외부기관 교류전... 포스코미술관 광양이 소장한 회화·사진·설치 미술 등 전통과 현대 아우르는 작품 37점 10월 30일(목)까지 선보여
- 문화예술 분야에서 시작해 교육·연구·산업 등으로 확장될 GIST-포스코 협력의 출발점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가치가 하나의 예술적 언어로 융합될 것"



▲ 2025 제4회 전시 GIST×POSCO 교류전 '빛, 창조를 잇다'가 전시되고 있는 오룡아트홀 전경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포스코미술관과의 교류전 <빛, 창조를 잇다>를 10월 30일(목)까지 GIST 오룡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오룡아트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외부 기관과 협력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문화예술 분야를 시작으로 향후 교육·연구·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GIST와 포스코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다.



▲ 작가미상, 8폭 병풍, 320, 한지에 수묵채색, 1992

▲ 정지윤, 등사, 210x138, 종이에 잉크, 흑연, 먹, 2013

전시에는 포스코미술관 광양이 소장한 회화, 사진,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37점이 엄선돼 소개된다. 1층에는 ▲남종화 대가 남농 허건의 <산수> ▲미인도 대가 장운상의 <장구치는 여인도> ▲수묵 추상 대표 작가 서세옥의 <농악> 등 산수화, 민화, 병풍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미술의 정수를 담은 작품들이 전시돼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한다.

2층 전시관에서는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거장 백남준의 <Anticorpo, Animare> ▲김찬일의 <dots> ▲김상구의 <No.873> 등 판화와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명한다.



▲ 백남준, Anticorpo, Animare, 90x140, 혼합재료, 1996

특히 준초이의 <Black Mountain>과 김철우의 <포항제철 연주공장>은 포스코의 원료 야드(저장 공간)와 연주공장* 등 산업 현장의 역동성을 예술적으로 담아내 이번 전시에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 연주공장(Continuous Casting Plant): 용융 상태의 쇳물을 '슬래브', '블룸', '빌렛' 등의 고체 반제품(덩어리)으로 굳히는 공정을 담당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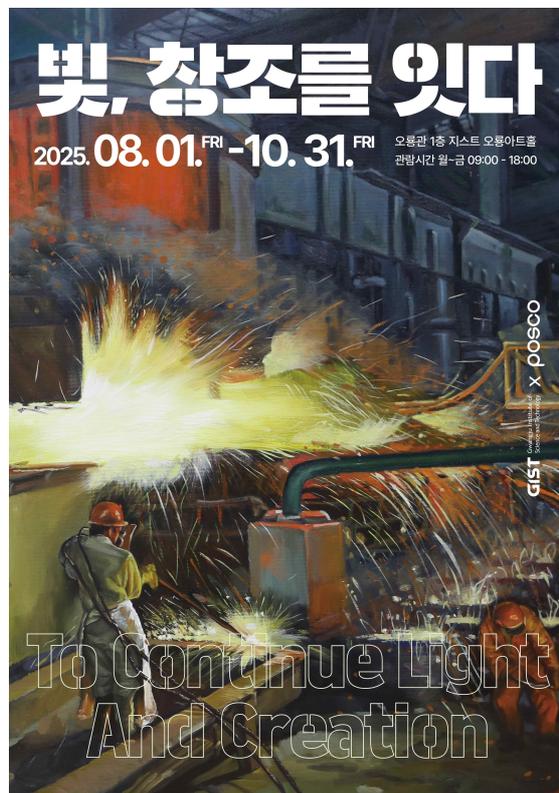
GIST 정용화 대외부총장은 "이번 교류전은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예술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가치가 하나의 예술적 언어로 융합되는 특별한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GIST 정문 건립에도 포스코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기관의 협력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눈에 보이는 시각적 상징으로 구현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GIST와 포스코가 추구하는 창의적 혁신과 지역사회 소통,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공동 비전이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미술관 광양 양다솔 큐레이터는 “철강산업을 선도하는 포스코와 국내 대표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GIST가 함께하는 이번 문화예술 교류전은 포스코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과 GIST가 밝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빛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며, “산업과 예술,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작품들로 구성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넓히고, 서로 다른 영역이 만나 만들어 낼 창조적 융합의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빛, 창조를 잇다> 전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주말 개방 관련 문의는 지스트아카데미(062-715-2622)로 하면 된다.

한편, 오롱아트홀은 GIST가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연·세미나·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다목적 건물 오롱관 1·2층의 내벽에 조성한 전시공간으로, 2022년 12월 제1회 초대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회의 전시가 열렸다.



▲ 2025 오롱아트홀 제4회 전시 GIST×POSCO 교류전 '빛, 창조를 잇다' 포스터

이번 GIST×POSCO 교류전 <빛, 창조를 잇다>는 오롱아트홀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